감상문 리포트

2016115805 박미선

처음에는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이 TCP/IP 통신을 사용한다는 말과 클라이언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개념을 하나하나 검색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니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드를 보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여기에 사용되는 기본 코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코드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코드를 보고 공부를 하다가 눈으로만 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에 하나하나 치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버 프로그램 1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3개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코드의 구조를 알 수 있었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을 시작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에 들어간 입력이 서버에 출력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번째로 이제 기능들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MB의 파일이 사진인지 음성파일인지 텍스트 파일인지 알 수 없어 임의로 정하고 시작했습니다. 이 때 source파일에 파일을 불러오고 파일을 분할하는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분할하는 방법이 도저히 검색으로 나오지 않아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source 파일은 그대로 서버프로그램에 파일을 전송하는 것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list파일은 파일에 있는 리스트들을 클라이언트로 보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 분할을 하지못해서 일단 임의의 source filename을 보내고 그것을 그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load파일은 한 개의 분할 파일을 가져와서 클라이언트에서 저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분할을 하지 못하여 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source파일이 있는지 검사하고 있으면 파일을 전송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파일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비록 분할 파일을 사용하지 못해서 실행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코드를 만들면서 고민을 해보고 하면서 처음 들었던 소켓 프로그램과 부족했던 파일 입출력에 대한 개념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이게 익힐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